



» 가축유전자원 보존현장

AI, 구제역으로부터 가축 유전자원을 지켜라

〈홍보부〉



지난 2월 5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충남 천안소재)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유전자원의 보고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다행히 축산자원개발부는 구제역 백신을 2차례 접종한 곳으로 증상이 나타난 돼지에 한해서 살처분시키는 조치를 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축산자원개발부는 인근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닭 종자의 멸실 방지를 위해 종란을 수집해 수원에 있는 축산생명환경부로 옮겨 긴급 부화에 착수하는 발 빠른 조치를 취한 상태였다.

농촌진흥청 가금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닭은 5품종 12계통으로 계통당 200수씩 총 2,400수를 인공수정 후 종란수집에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수집량은 1,000개 정도이다. 현재 남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도 닭 5품종 12계통 1,440마리가 중복보존 되어 있다. 종란의 경우 2주 이상 보관 시 부화율이 급격히



▲ 만약의 사태에 대비 종란을 안전한 곳으로 분산 배치시키고 있다.

표1. 국립축산과학원 종축 및 유전자원 보유 현황

구 분	계(두)	생명환경부 (수원)	자원개발부 (천안, 성환)	한우시험장 (평창)	가축유전자원 시험장(남원)	난지축산 시험장(제주)
한우	1,314	154	-	699	262	199
젖소	393	38	355	-	-	-
돼지	2,775	785	1,664	-	19	307
사슴	165	-	-	-	165	-
흑염소	326	-	-	-	326	-
면양	60	-	-	-	60	-
머플론	27	-	-	-	27	-
소 계	5,060	977	2,019	699	859	506
닭	14,866	951	11,047	-	2,868	-
오리	1,773	-	1,773	-	-	-
소계	16,639	951	12,820	-	2,868	-
계	21,699	1,928	14,839	699	3,727	506

* 우제류 : 5,060두

표2. 종축 및 유전자원 분산 보존 현황

축 종 별	보 존 량	보존 장소		비 고
		현재	추가	
형질전환	7종 405개	수원	남원	체세포, 정액
양돈	종돈 20두, 정액 250 스트로우	성환	남원	4품종
	축진등록 50두		영광 (농협종돈사업소)	
가금	1,440수	성환	남 원	5품종

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닭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던 한국 고유 토종닭을 복원해 낸 아주 소중한 유전자원인 만큼 최선을 다해 지켜내겠다”며 “인근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수원 축산생명환경부와 남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서 긴급 종란부화

저하(85% → 60%이하)되어 장기간 보관이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과에서는 지난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종란 10,000여개를 수집하고 별도의 소독 과정을 거쳐 수원에 위치한 축산생명환경부로 옮겨 24일 긴급 부화에 착수했다.

또한 남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서도 24일까지 총 6,000개의 종란을 수집해 부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가금과 서옥석 과장은 “현재 농촌

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유전자원을 지키기 위하여 직원들의 출퇴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종축 및 유전자원을 분산 보존시켜 놓은 상태이다.

수원 축산생명환경부에 있는 형질전환 가축 7종의 체세포와 정액 405개와 천안 축산자원개발부에 있는 종돈 20두와 정액 250 스트로우, 그리고 토종닭 1,440마리를 남원 가축유전자원 시험장에 옮겨놓았다. **양계**